

# 여수에 전국 첫 '건어물 전용 위판장' 들어섰다

### 국동 어항단지에 내달초 문 열여...연간 450억원 규모 거래 신선도 유지 폐쇄형 건립...경매·보관·배송 단계 청정 체계

연간 450억원 규모 건어물이 거래되는 전국 첫 건어물 위판장이 여수 국동 어항단지에서 들어섰다. 여수시는 다음 달 첫째 주 문을 여는 '건어물 수산물 청정위판장' 건립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어물 전용 위판장이 마련된 건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난 2022년 건립 사업을 추진해 올해 준공했다. 국비 24억원과 도비 4억원, 시비 14억원, 여수수협 28억원 등 총사업비 70억원이 투입됐다. 지상 2층 1개 동 2558㎡ 규모로, 위판장, 경매장, 포장실, 기타 편의시설 등을 갖췄다. 위판장 운영은 여

수수협이 맡는다. 전국에서 처음 생기는 건어물 수산물 청정위판장에는 중매인 40명과 생산자 20명이 경매에 참여할 예정이다. 위판장을 이용하는 업체는 모두 38곳으로, 이들 업체의 지난해 매출액은 430억원가량이었다. 건어물 위판장은 작은 멸치와 중간 멸치, 큰 멸치 등을 주로 거래하며, 앞으로 상품 포장을 세분화해 판로를 늘릴 계획이다. 건어물 전용 위판장은 건어물의 신선도를 지키기 위해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폐쇄형으로 건립됐다.

청정 위생 유지 체계를 도입해 입고와 경매, 보관, 배송 모든 단계가 안전하게 취급·관리된다. 위판장 2층에는 건어물 위판 과정을 볼 수 있는 견학 통로를 마련했다. 견학 공간은 하루 평균 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여수시는 지난 18일 건어물 위판장에서 정기명 여수시장,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 사·도 의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경찰서장, 여수해양경찰서장, 어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열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수산물 청정위판장의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판매 과정으로 건어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어업소득 증대와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수산물 소비자 만족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전국 첫 건어물 전용 위판장이 여수 건어물 청정 위판장이 지난 18일 국동 어항단지에서 준공식을 열고 다음 달 초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여수시 제공)



순천만국가정원 개울길 광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나고 있다. (순천시 제공)

## 순천만정원 인기 힘입어...순천, 국내 여름 여행지 1위

여행 플랫폼 '부킹닷컴' 검색 분석 검색량 지난해보다 가장 많이 증가 순천시는 여행 플랫폼 '부킹닷컴'이 발표한 국내에서 급부상한 여름 선호 여행지 1위에 순천이 꼽혔다고 19일 밝혔다. 부킹닷컴은 6월1일~9월1일 기준 최소 한 명 이상 자녀가 있는 한국인과 전 세계 여행객의 숙소와 항공편을 검색한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순천은 국내 가족 여행객들 사이에서 지난해보다 검색량이 급증한 국내 여행지 1위로 꼽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관광지점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였다.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찾은 관광객은 778만명으로, 에버랜드(588만명)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개장한 지 두 달여 만에 150만명 넘는 입장객을 기록했다. 국가정원은 여름철을 맞아 정원에서 즐기는 바캉스 '숲강스'를 내걸고 인기 굳히기에 나섰다. 국가정원 서문 어린이동물원 인근에는 '어린이 물놀이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미끄럼틀과 바닷분수, 물 분사 터널 등이 어린이 방문객을 맞는다. 어른들은 그늘 위 평상에서 더위를 식힌다. 정원 한복판에는 시원한 모래밭이 펼쳐진 '개울길 광장'이 펼쳐진다. 해가 지면 정원 곳곳에 설치된 조명 덕분에 야경을 만끽할 수 있다. 웅장한 음악과 펼쳐지는 수상 퍼레이드, 화려한 미디어 콘텐츠로 가득 채운 '스

페이스 브릿지'가 여름밤에 빛난다. 순천만국가정원과 도심을 연결하는 '순천 나이트 가든 투어'는 주말 예약이 매진될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전문 해설사와 함께 문화의 거리 등 원도심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국가정원에서는 다음 달 물놀이를 운영하며 물총 싸움, 정원클럽 등 여름철 즐길 거리를 보강한다. 오는 8월 순천시는 원도심의 밤을 즐길 수 있는 '문화유산 야행'과 '팔마문화제'를 연다. '문화유산 야행'은 '문화유산과 건축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건축 유산과 미디어 기술을 연계해 8가지 주제를 선보인다. 순천 유일 문화제인 '팔마문화제'는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지역 예술단체와 협업해 시민참여형 행사를 펼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 광양시 35세 이상 임부 의료비 50만원 지원

고령 임부 의료비 플러스 사업 광양시가 다음 달부터 35세 이상 임부에게 최대 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고령 임부 의료비 플러스 사업'은 고령 임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35세 이상(1989년 12월31일 이전 출생) 광양에 사는 임부라면 임신·출산 진료비와 검사비를 최대 5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기형아검사 유소견자도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가지고 보건소를 찾으면 해당 지원권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원권은 미래여성지원, 류여성의원 등 지역 산부인과 병원에서 쓸 수 있다. 검사 비용은 출산 후 6개월 이내 한 차례에 한해 광양시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보건소 출생지원팀(061-797-475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고령 임부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임산부를 지지해줄 수 있는 임신·출산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 '솔로엔딩, 그대에게 고(GO)~'에 참가한 미혼남녀와 공영민 고흥군수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 고흥에서 '그대에게 고~ 솔로 엔딩!'

미혼남녀 만남 주선 행사 고흥군이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솔로엔딩, 그대에게 고(GO)~'를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진행했다. 이 행사는 '고흥애(愛) 솔로몬 봉사단'의 연계 사업으로 추진됐다. 고흥애(愛) 솔로몬 봉사단은 지난 2020년부터 이 행사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두 쌍이 결혼에 성공했고, 다른 한 쌍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두 쌍이 인연을 맺었고, 비공식 짝도 한 쌍 탄생한 것으로 알

려졌다. 지역 기업과 기관 종사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공무원 등 22명이 참가했다. 2박 3일간 참가자들은 무작위 만남, 일대일 만남, '정춘 맛남식당'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다. '솔로엔딩, 그대에게 고(GO)~'는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시간을 내기 힘들었을 텐데도 어려운 길을 한창 남들에게 감사 전한다"며 "어렵게 참석한 만큼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 순천경찰 '똑·똑·단' 어르신 안전 지킨다

9개 기관 참여 노인 돌봄 활동 순천경찰이 노인 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9개 기관과 어르신 일상 지키미 '똑·똑·단'을 꾸렸다. 어르신 집을 찾아가 문을 '똑·똑' 두드려 안부를 묻는 '똑·똑·단'은 18일 위촉식과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이들은 최근 늘고 있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안전 취약 노인을 서둘러 발굴하는 활동을 한다. 순천경찰과 순천시 노인복지과·안전총괄과,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전남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순천지역노인복지센터 연합회,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순천대학교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 똑·똑·단 위원들은 국승인 순천경찰서장으로 부터 위촉장을 받고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전 취약 노인 사례발굴·지원 방안 ▲노인학대 신고체계 강화 ▲정보공유, 협력체계 구축 방안 ▲노인 안전 정책 의견 공유 ▲경찰체 협 활동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순천경찰 등 9개 지역 기관·단체가 노인 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한 '똑·똑·단'을 꾸려 활동 시작을 알리고 있다. (순천경찰 제공)

국승인 순천경찰서장은 "똑·똑·단 어르신 일상 지키미는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고 시대변화에 맞춰 노인 세대의 의견이 충분히 담길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며 "노인 범

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고흥군민 10명 중 8명 "민선8기 군정 만족"

가장 잘한 분야는 '군민 소통' 고흥군민 10명 중 8명 이상은 민선8기 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흥군은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18세 이상 군민 1014명을 대상으로 군정 만족도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군정 운영을 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84.9%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92.8%로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40대(68.5%)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80%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흥군이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군민소통'이라는 응답이 2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우주항공' (19.3%), '주민복지' (12.5%), '인구증대' (11.6%) 등 순이다. 분야별 주요 시책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우주항공 시책'이 86.6%로 가장 높았으며, '정주기반 확충' 84.8%, '군민소통 강화' 84.1%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고흥군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유선 전화·면접조사와 자동응답 방식을 병행했고,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 보성 읍포솔밭해수욕장 다음달 6일 개장

보성군이 읍포솔밭해수욕장을 다음 달 6일부터 8월25일까지 개장한다고 19일 밝혔다. 보성군 회천면 동우리 읍포솔밭해수욕장은 통합안전재관리센터 1동, 관광안내소 1동, 샤워장 3개소, 음수대 2개소, 화장실 2개소, 탈의실 1개소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성군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시설물 안전

점검과 안전요원 배치 등 준비를 마쳤다. 해수욕장 인근에는 소나무 숲과 읍포해수욕장센터 화장실수질위판장, 비봉마리나, 바다낚시공원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방문객들은 맨발 걷기와 야영, 해수욕 등을 즐길 수 있다. 해변을 즐기고 보성의 대표 관광지인 차밭과 밭재, 한국차박물관 등 관광명소도 찾을 수 있다. /보성=김은중 기자 kym@